

## 희망세상 (2007년 3월호 / 54호)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일 : 2007년 3월 1일
- 발 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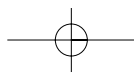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기획연재 1 - 6월민 주항쟁 20년사업, 두 번째 <어린이 마당극 제작> |

# ‘어린이 마당극’을 준비하며

글 · 윤 민 석  
yms1@hanmail.net

어린이 마당극 제작사업은 대중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사업의 성과를 축적, 계승할 수 있는 문화 예술적 접근의 필요에 따라 제기된 사업이다. 이는 어린이들에게는 정의감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웃음과 감동을 주는 훌륭한 문화 예술적 계기가 되어 6월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수용자 중심의 방식으로 보다 재미있고 쉽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의 좋은 표본이 될 것이다.

## 첫째 마당 - 노래로 꽃을 키우는 사람들

이곳은 노래로 꽃을 키우는 사람들의 마을이다. (시대는 불분명함. 먼 미래 사회 같기도 하고 아주 먼 옛날 같기도 한 환상적인 느낌의 마을. 노래를 불러 꽃을 키우는 사람들의 모습. 평화롭고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깨고 멀리서 군홧발 소리가 들려오다 점차 커지면서 사람들의 노래 소리를 덮고 거대한 문어가 개들(인형)을 이끌고 등장. 순식간에 마을의 꽃밭을 밟아 놓는다. 마을 사람들이 꽃을 살려보려고 이리저리 뛰어 다니며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다.

문어가 앞세우고 온 개들 중 한 마리가 ‘어지러운 마을을 정화시키고 질서를 바로 잡아 여러분들을 참세상으로 이끌어 주실 문어 장군이시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적군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할 문어 장군의 말이 곧 법이며



하늘이다.’라고 주장한다. 노래금지 계엄령을 선포하여 노래로 모이는 것과 노래로 꽃 키우는 것을 금지하고 앞만 보고 달려 번영하는 마을을 만드는데 온마을 사람들이 필사의 노력을 할 것을 강요하면서 문어 장군 만세 삼창을 시킨다. 사람들이 겁에 질려 만세 삼창을 어설피게 외칠 때 마을 이장이 혼자 의연히 일어나 노래를 부르다 문어 다리에 맞아 죽고 이장의 부인 역시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을에서 추방되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부인을 돕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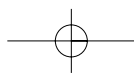
## 둘째 마당 - 잡혀가는 사람들

술 마시다 흥이 나서 노래하다 잡혀가고, 연인의 창문 밑에서 노래로 청혼을 하다가 잡혀가고, 모내기 하다가 절로 나온 노래에 잡혀가고, 소풍갈 때 노래하던 어린이들 떼거지로 잡혀가고……. 노래만 하면 잡혀

가는 통에 사람들은 점차 노래를 멀리 하게 되고, 이제 마을은 문어 편에 서서 배불리는 소수의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로 분열되고 분위기는 삭막해지면서 분열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난다.

한편 추방당한 땅에서 홀로 이들을 낳은 이장부인은 몰래 아들에게 “문어 일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노래를 듣고 피어난 꽃이란다. 노래로 꽃을 피울 수 있는 날 우리도 마을로 내려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며 노래를 가르친다.

아들이 자랐을 때 어머니가 꽃씨를 준다. 아들은 홀로 꽃씨를 심고 노래를 불러보지만 꽃은 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노래를 해도 꽃은 피어나지 않는다. 혼자 노래해서는 절대 꽃을 피울 수 없음을 깨달은 아들은 어머니께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노래로 꽃을 피워 아버지의 원수를





값고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는 날 만들겠다.’ 고 다짐 하며 마을로 떠난다.

**셋째 마당 - 다시 노래를 부르자**

**장면 1**

영화 <덤 앤 더머>의 주인공 같은 개 두 마리가 나와서 멍청한 짓을 하다가 위엄을 차리며 관객들을 검문검색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 - 예를 들면, 빨간 안경테, 빨간 옷을 입었다거나, 왼손으로 밥을 먹는다 는 등 - 로 벌금을 내라고 으박지르며 관객들을 괴롭힌다. 반역자 수를 채워야 내 월급도 올라가는데 요즘 은 도통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죽게 생겼다고 투덜거리다가 퇴장한다. 마을로 내려온 아들은 개들의 눈을 피해 마을 곳곳에 악보를 붙이고 아이들에게 몰래 노래를 가르치는데, 노래를 처음 배워보는 아

들이라 낯설어하지만 나중에 성공하여 크게 기뻐한다. 이 때 개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쫓아와 모두들 도망가면서 아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던 한 아이(관객 중에서)에게 꽃씨를 담은 병을 넘겨주며 잘 간직하고 있어주길 부탁하고 나가다가 검문검색에 걸린다.

아들은 개소리를 내 위기를 모면하지만 객석까지 내려와 관객들을 검문검색하던 개들은 아들에게서 꽃씨 병을 받은 아이 관객에게 아들의 행방을 대라며 간질이기, 손에 전기 오게 하기 등의 방법으로 괴롭힌다. 이 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오고 개들은 황급히 노래 소리를 잡으러 쫓아간다.

**장면 2**

아이들이 다시 모여 노래를 부른다. 이 때 아이들의 부모들이 ‘안돼!’ 를 외치며 다급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누가 노래를 가르쳤나, 으박지르다가 어른들끼리

너희 애가 먼저 불렀네, 아니네 하며 싸우기 시작한다. 아들이 나타나서 “그만 싸워라, 내가 가르쳤다. 그러지 말고 어른들도 함께 부르자” 고 설득하지만 어른들은 차갑게 외면한다.

이 때 마을 사람 하나가 아들을 신고하려 하고 다른 마을 사람 하나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싸움이 커진다. 개들이 나타나 싸우던 마을 사람 둘을 잡아가려고 하자 아들이 막아나선다. 이들은 “두 분은 잘못 없다. 내가 노래를 가르친 사람이니 나를 잡아가라” 고 한다. 이 때 신고를 막으려던 마을 사람이 아들을 지켜내고자 일부러 큰 소동을 벌이고 결국 혼자만 두들겨 맞으며 끌려간다.

**넷째 마당 - 일어서는 사람들**

문어가 노가리에게 왕권 이양을 발표하고 노가리는 의기양양 체육관에서 행사가 있을 테니 깨끗한 물로 채우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체육관에 물을 채우며 점점 지쳐 가는데, 잡혀갔던 마을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고 아들을 신고하려 했던 다른 마을 사람은 미안함에 울음을 터트린다.

모두가 다시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미 잊은 지 오래된 노래는 나오지 않고 이상한 괴성만이 울음처럼 터져 나온다. 이 때 아들이 노래를 부르며 나오고,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모여 서투른 노래로 시작해서 점차 웅장한 노래를 부른다. 당황한 문어와 노가리가 개들을 앞세우고 나와 당장 노래를 멈추고 흩어지라고 명령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들은 최루탄을 쏘아 대고 아들은 관객에게 맡겼던 꽃씨 병을 받아서 꽃씨를 꺼내 날리는 순간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다.

**다섯째 마당 - 꽃으로 부활하다**

이장 부인이 나와 아들을 붙잡고 오열하고 아들은 눈 감기 전 관객들에게 함께 노래해 줄 것을 부탁한다. 관객들과의 대합창과 함께 장례행렬이 시작되고 동시에 마당판 곳곳에서 꽃들이 피어난다. 꽃들이 피어나자 개들은 잠전해지고 꽃들에 파묻혀 문어와 노가리는 사라지면서 무대와 객석에는 꽃과 노래가 가득해진다.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해 좋게 말하면 무슨 얘기든 상관 않고 국수주의니, 편협한 민족주의니 하며 매도당하기가 일쑤여서 괜한 주눅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서양의 오페라나 뮤지컬이라면 무언가 우아하고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십 수만 원의 관람료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당극은 웬지 상대적으로 저급하게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다.

6월민주항쟁20년사업추진위원회와 큰들문화예술센터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이 마당극을 통해 6월민주항쟁의 뜻을 되살리고 마당극에 대한 관심을 재고하는데 작게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웬만한 뮤지컬의 5%도 안 되는 제작비로 만들어지는 이 마당극 탄생의 의미가 조금은 새롭게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윤민석*

**글 윤민석**  
작곡가 20여 년 동안 민중가요 작곡가와 문화예술기획자로 활동. 현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남북문화예술교류위원회 위원장, 6월민주항쟁20년 사업추진위원회 기획위원으로 활동. 대표곡-서울에서 평양까지, 백두산, 그대 고운 내 사랑, 경의선 타고 등